

국내 양계시장 석권의 비결은?

- 빈틈없는 차단방역, 우수병아리 생산이 원동력 -

◇ 취재 / 김동진 기자

1. 50년간의 노하우, 국내 양계산업 선봉에

충남 홍성군 광천읍내에 위치한 (주)삼화원중(대표 배성황)은 양계, 양돈을 포함해 총 13개 농장(양계 10곳, 양돈 3곳)이 있으며, 계약농장까지 포함하면 24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계의 경우 1년동안 국내에 공급하는 종계는 250만수로 국내 생산량의 70%, 실용계의 경우 2,200만수로 국내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돈의 경우 1년에 5,000두의 종돈과 27,000두의 비육돈을 생산하고 있어 명실공히 국내 축산업(양계, 양돈)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삼화농원이 설립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2년, 한국전쟁 이후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였다. 닭고기와 계란이 몹시 귀했던 당시 삼화농원은 양계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선진 양계시



△배성황 (주)삼화육종 대표 - 철저한 방역 및 사양관리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1. 종계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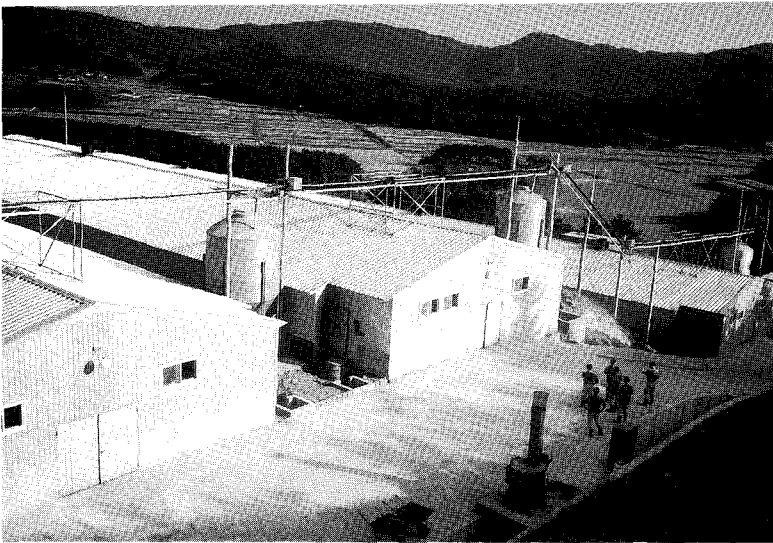
| 년 도 | 수 수 | 수 출 국 |
|------|---------|------------------|
| 1998 | 24,000 | 대만 |
| 1999 | 104,000 | 대만, 말레이시아 |
| 2000 | 91,000 | 대만, 말레이시아 |
| 2001 | 160,000 |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설은 물론 양계 사양관리 기법을 통해 일찍부터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농장을 이끌어 왔다. 이후 50여년 동안 종계, 원종계, 종돈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1976년에는 종계장 및 부화장(청소농장)을 건립하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2년도에는 양돈사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민들에게 축산물 공급의 폭을 넓혀갔다.

1990년에는 육용원종계(GPS)인 하이브로와 산란종계(PS)인 하이섹스브라운을 도입하면서 GPS사업에 참여하였다. 1994년도에는 회사를 법인전환시키고 1997년도에는 아바이커(AA)의 대리점권 마저 인수하면서 기존의 로스(ROSS)와 함께 국내 원종계 산업을 하나로 묶는 데 변신을 이루었다. 병아리 품질의 우수성이 국내외에 알려지면서 1998년 처음으로 대만에 24,000수의 종계가 수출된 이후 지금까지 379,000수의 종계가 대만 등 동남아 지역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 4월까지 13만수의 수출물량이 주문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삼화원종의 조직을 살펴보면 생산부(농장, 부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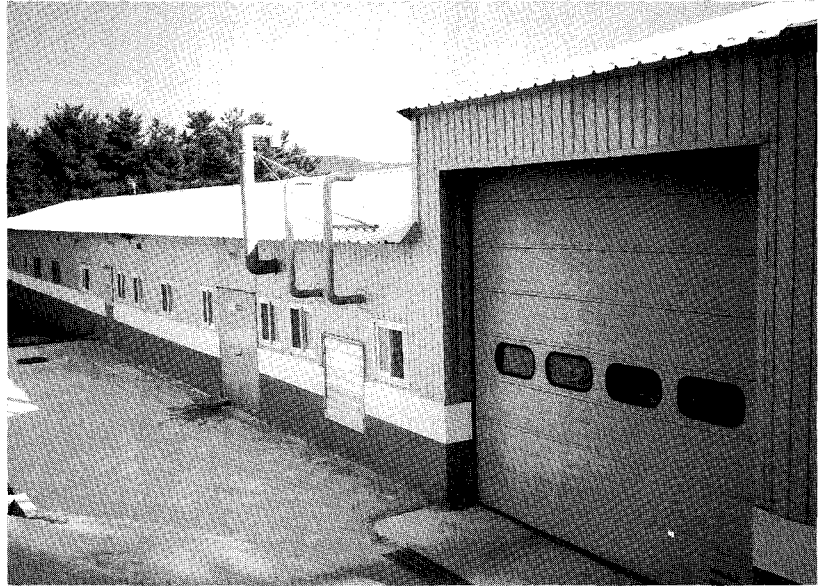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원종농장(교성농장) 전경



△원종농장 내부 광경-교성농장은 D라인 기준 22,500수가 사육되고 있다.

관리), 영업부(PS, CC 판매 및 수출, 계약농가 관리), 기구사업부(건축, 양계기구 판매, 유지보수), 양돈부(양돈농장 관리, AI 센터 관리), 총무부(자금, 세무, 회계관리), 질병연구실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여유로운 인력 배치와 복지향상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농장출입구 및 관리사 전경-모든 출입자 및 차량은 철저한 통제하에 농장 내로 진입할 수 있다(농장 출입구는 양돈장과 양계장이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원종농장(교성농장)을 찾아서

본지는 지난 1999년 10월에 건립된 산란원 종농장인 교성농장을 찾아 보았다.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한 교성농장은 HACCP제도를 도입한 최첨단 관리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계사 면적이 6,396㎡(13m×123m×4동)이고 사육규모가 22,500수(D-line 기준)로 농장은 4명이 관리하고 있다. 교성농장을 포함하여 삼화원종의 사육규모를 보면 육성농장이 13만5천수(GP 2곳, PS 1곳), 산란농장이 21만수(GP 4곳, PS 1곳), 계약농장이 15만수 규모(6군데)를 자랑하고 있다.

1) Informatic system을 이용한 사양 관리

교성농장은 농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본사와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본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농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Informatic system으로 명명되는 이 시스템은 계사내의 모든 제어장치가 컴퓨터를 통해 연결되어 계사내의 정보가 본사까지 전달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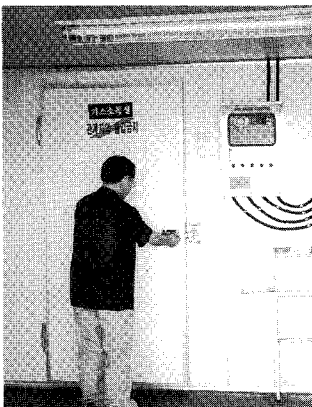
Informatic system은 현재 원종계장 2곳(GPS 육성, 산란)과 종돈장 1곳이 본사와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13곳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본사에서 모든 계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

교성농장은 여름과 겨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터널환기, 크로스환기를 병행하면서 종계장 내에 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등을 닭의 환경에 맞게 조절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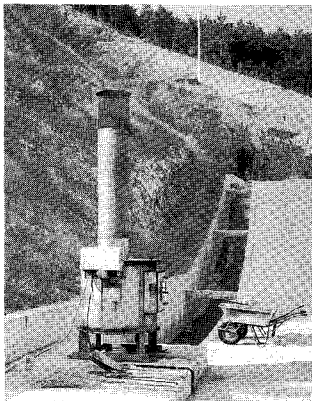
급이, 급수량도 1g(1)의 오차가 없을 정도



△농장출입시 샤워후 방역복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모든 장비는 가스소독실을 통과해야 반입될 수 있다.



△농장내 폐사계는 외부반출없이 소각기에서 일괄 처리

로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자동체중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산란기에도 매일 체중이 측정되기 때문에 닭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농장이 전산화되다보니 전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먼지로 인한 화재 발생 등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케이스에 모든 전선을 통과하도록 하였으며, 점검과 수리시에도 해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특히, 모든 시스템과 기계가 외국제품과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기구사업부는 전자망을 통해 외국본사와 연락을 취해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주)삼화원종의 모든 사양관리는 철저한 기록 및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로스와 아바에이커 본사로부터의 주기적인 기술지도를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삼화원종의 모든 계군은 이미 올인 올아웃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으며, 원종계(GPS)의 경우는 금년까지 올인 올아웃을 실행함으로써 계군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2) 방역 및 위생관리

(주)삼화원종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병아리 생산이며, 이를 위해 방역, 위생에 빈틈없는 시설과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농장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출입자(본사직원 포함)를 최소화한다. 모든 농장의 출입자 및 출입차량은 자동화된 방역실을 통과하여야만 하며 사람의 경우 샤워를 실시하고, 농장에 비치된 방역복으로 갈아입어야만 하며 차량인 경우 분무 소독된 후에 출입문이 열리도록 되어있다. 또한, 모든 장비도 가스소독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이곳을 통과해야만이 반입이 될 수 있다.

교성농장의 경우 사료차량은 절대 농장내로 진입을 할 수 없으며, 외부사료탱크에 저장된 사료가 사료 파이프를 통해 각 계사로 이송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농장내에서 폐사한 닭들은 농장내 소각기를 통해 완전 소각되어 처리된다.

모든 농장(양돈, 양계, 부화장) 근무자는 정해진 출, 퇴근 시간을

준수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출근시간은 오전 8시 퇴근시간은 6시 30분이다.

특히, 계군의 건강상태(GP, PS)를 정기적으로 점검(수의사에 의함)하여 로스사와 아바에리카와 교신하여 처방 및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육종회사의 의사 정기방문(년간/2회/품종별)시 직접점검 및 대책을 논의하여 처방하고 있다.

삼화원중에서 자랑할 만 한 것은 자체 질병연구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연구기관에서 6개월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현장경험이 있는 의사 2명이 질병연구실에 배치되어 자체 농장 및 거래처 질병서비스의 일환으로 혈청검사 및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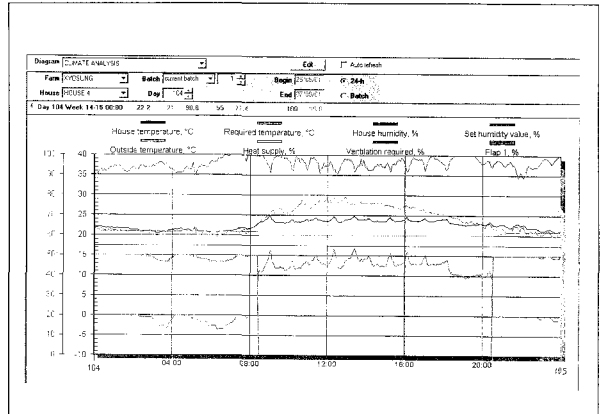
3. 향후 계획

삼화농원이 추구하는 것은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있다. 교성농장(원종농장) 등 일부 농장에서 현재 실시해오고 있는 HACCP를 전 농장으로 확대, 실시하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Free 상태를 유지하고, 우수종계장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차별화된 병아리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해외견학 및 교육을 통해 전문기술 습득 및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장직원의 여유있는 관리, 배치를 통해 보다 세밀한 농장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Informatic system을 통해 본사에서 각 농장의 환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사에서 교성농장의 환경을 화면상에서 확인하였다.

이와같은 지속적인 종계관리로 현재 모든 종계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농장에 기술, 지도 감독 등 서비스를 7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물량조절을 위해 원종계부터 수수조절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으나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수출량을 충족시키면서 동남아뿐 아니라 일본 등 기타 주변국들로 수출망을 확대해 나아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계**